



축산정보



구제역 방역 철저해야

여행 자제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필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이후 구제역 비발생 국가로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구제역 유입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해 러시아와 몽골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나 가까운 중국에서는 강소성·신강·하북성·청해성·녕하 자치구 등 내륙지역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은 두만강 인접지역인 함북에서 발생한 이후 지난해 평양 상원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어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만 해도 470만명, 수입 축산물량 또한 200만톤에 달한다며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수입건조 및 입국자 신발 소독, 휴대축산물 검색, 남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등 기본사항 이외에도 중국 등 발생국의 수입 멸균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영세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요원 2,900명을 요원별로 주1회(평시 월 1회) 5호 이상 예찰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연수생, 외국 현지 양돈장 경영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중국 여행을 자제하고, 중국에서 양돈장을 경영하는 농장 관계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합사료값 또 다시 6~7% 인상

배합사료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배합사료업계는 오르는 옥수수, 대두박 등 원료가와 해상 운임료 등을 견디지 못하고 사료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평균 6~7%선에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사료가격 인상은 지난 2006년 11월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5월, 10월, 2008년 1월에 이어 이번이 6번째이다. 인상율은 총 36%에 달한다.

이에 대해 사료업계 관계자는 사료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에 부담을 너무 주게 되어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앞으로도 또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오르는 사료가격 때문에 축산을 포기할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에 인수위가 발표한 1조원 지원으로는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폐업보상제 도입 검토

정부에서 한·미 FTA 발효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직불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5일 대한양돈협회 제천시부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는 일정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폐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3년간의 소득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돈협회를 비롯한 양돈업계는 '자유무역협정체결(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품목에 축산업을 포함시키고 낮은 생산성과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폐업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인수위, 농진청 폐지 후속대책 발표 연구비 재정보에서 계속 지원, 농림R&D 예산 확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구비를 재정보에서 계속 지원하고 농림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농림예산의 7%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R&D 예산을 확대하여 2008년 현재 5천 722억원에서 2012년 1조1천억원까지 투자를 늘리고, 연구비는 계속 재정보에서 지원하여 상업성이 없는 기초 기술과 품목별 연구과제 등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연연구기관이 새로 개발한 품종도 지금처럼 로열티부담 없이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 관련 조직을 신설, 농진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관련 정책 기능을 흡수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직신설 및 인력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의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농업인의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장관에 정운천씨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부장관에 정운천(54) 한국농업CEO연합회장이 내정됐다.

정운천 내정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남 해남에서 참다래유통사업단을 경영하고 있으며, 1984년 뉴질랜드 키위를 국내에 들여와 '참다래'로 자리 잡도록 한 벤처농업인이다.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 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지난 2월 1일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현재 도축장이 포화상태여서 가동을 저하와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 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구조조정 재원조성을 위하여 거출금 납부 및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조정자금은 도축장 경영자로부터의 거출금 및 이외 출연금, 촉발기금을 재원으로 구성하고, 조성된 자금은 폐업도축장 및 통·폐합도축장에 대한 시설개선 등에 지원토록 했다. 한편 특별법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면 특별법도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축세 폐지 또는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이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정책국 폐지 반대

축단협 공동성명 발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발표와 관련해 농림부내에서 축산정책국 폐지방안이 밀실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정책국 폐지음모를 중단하고 축산정책국을 산업 발전에 맞게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축단협은 공동성명을 통해 “농림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조직을 지나치게 기능성 위주로 개편하여 축산정책국을 폐지하고 부서별로 분산시킨다면 축산부분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은 더욱 기대하고 힘들고, 전문적인 해법과 대책 마련이 혼재되어 있는 축산행정을 이합집산 시키는데 시간을 허비하여 정책추진의 혼란은 물론 축산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이에 따라 “축산업의 비종과 특성,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내부조직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축산정책국 폐지음모가 현실화 된다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센터 응돈구입 40만원 보조

농림부, 검정성적 상위 20% 돼야

올해부터 인공수정용 우수 응돈 구입비가 돼지AI센터에 지원된다.

농림부는 올해 4천만원을 투입, 시·도에 등록된 돼지AI센터가 국내에서 능력검정을 필한 우수 종돈을 구입할 경우 두당 4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대상종돈은 PSS유전자가 없어야 하며 국내에서 검정된 것으로 검정성적 상위 20%이내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농장검정의 경우 90kg도달일령과 등지방 두께, 일당증체량 중 1개 항목이, 검정소 검정돈은 사료효율, 등지방두께, 일당증체량, 선발지수 중 1개 항목이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AI센터는 검정기관이나 종돈장 등 우수 응돈구입처에 구입금액을 전액을 지불한뒤, 오는 6월말까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촉발기금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업 외국인력 5천명 투입

올해 농축산업에 투입되는 외국인력이 5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4일 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3만2천명 규모로 일반고용허가제(일반외국인) 7만2천명, 특례고용허가제(해외동포) 6만명이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투입되는 외국인력은 5천명으로, 일반 4천명, 특례 1천명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수의사처방제 도입 논의 중 전문수의사 부족 선결과제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문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수의사처방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림부는 2011년 도입 시행을 목표로 하여 관련법안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처방제 도입시 예상되는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처방제 대상 약품은 잔류와 내성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대상 약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입 시기를 놓고 생산자단체는 전문수의사 부족 문제부터 해결한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아직까진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

결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된다면 농가가 시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월 돈육수입 2만4천톤

미국 캐나다산 수입량 절반 차지

올 1월 돈육 수입량이 2만4천톤을 기록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수입된 돼지고기(검역기준)는 총 2만3천72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8천820톤 보다는 감소했다. 그러나 2만톤을 상회하면서 여전히 돈육 수입량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산은 총 9천82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38%를 차지했으며, 캐나다산은 총 2천649톤으로 11% 비중을 차지했다. 벨기에산은 총 3천534톤이 수입되어 총 수입량의 15%를 차지하는 한편, 전년동월대비 65% 큰 폭 늘었다.

국별로는 벨기에산이 1천373톤 수입됐으며, 오스트리아산 1천363톤, 프랑스산 1천347톤, 네덜란드 1천297톤 등으로 수입됐다.

EU산 냉동삼겹살은 국내산의 40% 수준에 불과한 싼값을 무기로 이미 우리나라 총 수입량의 대부분을 점유해왔다. 올 1월에도 총 6천7백톤이 수입되어 냉동삼겹살 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했다.

작년 양돈사료 생산량 4.5% 늘어

작년 양돈사료 생산량이 총 540만9천210톤으로 지난해 517만5천67톤대비 4.5% 증가했다.

이처럼 양돈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돼지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료 생산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2월 생산량은 48만7천77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44만6천541톤과 견줘 9.1%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 0.3% 소폭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젓먹이돼지 29만6천420톤, 육성돈후기 73만3천70톤으로 각각 전년대비 1.8%, 7.9% 감소한 가운데, 젓뎨돼지 140만8천589톤, 육성돈전기 161만4

천366톤, 비육돈 7만7천771톤, 비육돈출하 13만2천367톤으로 각각 4.5%, 12.8%, 4.1%, 37.3% 증가했다. 또한 번식용수돼지(1만1천89톤)와 번식용암돼지(1만6천495톤), 임신돼지(64만5천515톤), 포유돼지(47만3천528톤)는 각각 전년대비 8.8%, 4.7%, 2.0%, 1.2% 늘었다.

2007 양돈장 PED 극성

지난 한 해 양돈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PED는 2007년 한 해 동안 매달 발생했으며, 총 36건, 1만3천724두에서 나타나 2006년도 대비 34%인 3천466두가 늘었다.

한편 12월에는 울산, 충남, 경북에서 각 1건씩 총 3건, 470두에서 발병해 11월과 비교해 26% 증가했다.

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무상공급 실시

농가에 대한 '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지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이뤄질 방침이다. 백신은 모든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2,2회전)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모든 이외에는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두당 약품비는 256원(국비 179원, 지방비 77원)을 지원,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다.

백신 접종시기는 종부 2~4주전으로 백신은 100% 지원하며,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예방접종이 금지된다. 올해 돼지열병·단독 혼합백신 총 사업량은 210만두이며, 총 사업비는 5억3천760만원으로 국비 3억7천590만원(70%), 지방비 1억6천170만원(30%)이다.

한편 '돼지열병 백신'은 모돈을 제외한 사육돼지 전 두수를 대상으로 하며, 두당 78원(국비 54원, 지방비 24원)이 지원된다. 접종시기는 자돈의 경우 1차 40일령(5~6주), 2차 60일령(8~9주)이며, 종돈·번식돈은 연 1회이다.

작년 돼지고기 소비량 1인당 19.7kg

작년 한해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지난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19.7kg으로 2006년 18.1kg보다 1.6kg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95만6천500톤으로 '06년 87만4천700톤보다 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71만톤으로 전년 67만7천톤에 비해 4.8% 증가했으나, 수입량은 24만8천톤으로 21만톤과 견줘 무려 18.1%가 증가했다. 농경연은 2006~2007년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감면 농업회사법인 소득의 범위에 '축산' 포함

지난 1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의 범위에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추가토록 했다.

한편 같은 날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돼지 200두에서 500두로 확대했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대상에 동물의약품과 축산 약취제거기 등 품목을 추가시켰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최근 농림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월 지원기준 소득금액을 작년 52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예산도 작년 761억원에서 올해 884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농어민 27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자의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지원한도인 27,900원을 정액으로 지원키로 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1월 소비자물가 돼지고기 2.5% 올라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상승한 가운데, 돼지고기는 전월대비 2.5% 상승했다. 한편 밀가루는 전월 대비 31.5%, 감자 25.7%, 자동차용 LPG 10.7%, 휘발유 1.7% 등이 전월대비 각각 상승했다.

양돈관련조합협의회장에 박해준 조합장



전국양돈관련조합협의회 회장에 박해준 대구경북양돈조합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8일 농협중앙회관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호선으로 박해준 조합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경양돈조합장에 박재민 전 김해지부장 당선



박재민씨가 부경양돈농협 제9대 조합장에 당선됐다.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월 2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세 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인 결과 유효투표 503표 중 40%인 199표를 얻은 박재민 후보가 177표(35%)의 최상백 후보를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조합장은 “진정으로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 대통합과 화합으로 재도약하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4년생인 박 신임조합장은 밀양대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김해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양돈자조금 대의원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조합장 선거에는 총투표인 556명 중 503명이 참여 90.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올 종돈 MMA 물량 3천두 예상

올해 종돈 수입 물량은 MMA(최소시장접근물량) 기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축개량협회 김성수 팀장은 이와 관련 “올해 신규로 종돈사업을 시작하려는 농가들과 농장을 증설하려는 곳이 많아 그에 따른 종돈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올 한해 종돈 MMA는 작년과 비슷한 3천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농가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공사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확정된 MMA보다 실제 수입 두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엔 MMA가 3천두로 확정됐었으나 07년 종돈 수입 두수는 통관 기준 2천62두로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축산과학원, 친환경 냉난방시스템 개발

돈사 난방비용 절감 기여

돈사 난방비용을 줄이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개발됐다.

축산과학원은 최근 (주)티이엔과 공동으로 수직밀폐형 지열 냉난방시스템을 개발, 특허출원하고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하 200m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히트펌프에서 유효에너지로 변환, 냉난방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과학원은 사양 시험에서 겨울철 영하 9℃ 이하인 혹한기에도 돈사 내부온도는 21.5℃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직접열풍기가 산소부족현상과 환기량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진데 비해 이 시스템은 신선한 외풍을 충분히 불어넣어 돈사 내부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의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열난방 돈사의 경우 사료를 11.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역시 고온스트레스 없이 자돈 이유시 체중이 7.1% 증가하는 등 생산성 증대 효과도 입증됐다.

설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맞아 전국적으로 실시한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 위반이 55건, 쇠고기 26건, 고춧가루 24건 등으로 돼지고기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벨기에산 삼겹살과 미국산 목살을 슬라이스하여 국내 유명 브랜드가 명시된 박스로 포대같이한 후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위반수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관원은 정월대보름(2. 21) 전까지 각종 농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부정유통 신고 1588-8112

돈사 화재 주의 당부

돈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축산과학원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난방을 위한 온풍 난방기 사용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과학원은 축사 화재 원인 가운데 76%가 누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전기 안전수칙으로 △소화기 비치 △노후 개폐·차단기 교체 △누전차단기 월 1회 점검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 청결 유지 등을 제시했다. 과학원은 또 유사시 축사용 고압세척기를 활용, 화재진압을 하거나 열풍기 온풍기 등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양돈**

